

6월 극장가, '여풍(女風)' 거세다...관객 만날 채비 속속



6월 극장가 '여풍(女風)'이 거세다.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여성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여성들이 속속 관객들과 만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 할리우드 영화 '오션스8' (감독 케리 로스, 수입 배급 워너브라더스코리아)과 한국 영화 '히스토리' (감독 민규동) '마녀' (감독 박훈정) '여중생A' (감독 이경성) 등이 바로 그 작품.

오션스8·히스토리·마녀·여중생A 등 여성 주인공·여성들의 이야기 중점 다뤄

를 하고 있는 것. 할리우드 영화 '오션스8' (감독 케리 로스, 수입 배급 워너브라더스코리아)과 한국 영화 '히스토리' (감독 민규동) '마녀' (감독 박훈정) '여중생A' (감독 이경성) 등이 바로 그 작품.

우선 '오션스8'은 뉴욕에서 열리는 최대 패션쇼인 메트 갈라에 참석하는 스타의 목에 걸린 1천 5백억 원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전격 결성된 범죄 전문가들의 화려한 활약을 그린 케이트 캐퍼 무비다. 케이트 무비의 전설 '오션스' 시리즈의 명성을 이을 신작이기도 하다.

'오션스8'은 모든 주연 배우들이 여성으로 이뤄져있다는 점에서 캐스팅 당시부터 화제가 됐다. 산드라 블록 앤 헤서웨이, 케이트 블란켓, 민디 칼링, 사라 폴슨, 아파피나 리한나 헬레나 본햄 카터 등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했다. 초호화 캐스팅을 기반으로 개성이나 빛나는 대담하고 입체적인 캐릭터의 활약이 스크린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작품은 특히 미국 패션계 최대 축제인 메트 갈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

어 각종 패션 브랜드와 톱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도 큰 눈요깃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극중 산드라 블록이 사기 작전의 설계자다 연기과 배우 케이트 블란켓은 지휘관으로서 전체 작전을 총괄하며 우아함을 선보인다.

앤 헤서웨이는 이들의 타깃이 되는 톱스타로 분한다. 만능 엔터테이너 민디 칼링은 워터지 진풍파 폭동이 만들어내는 모조장인으로, 에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사라 폴슨은 베테랑 행동대장으로 각각 등장한다. 헬레나 본햄 카터는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로서 타깃을 감시하는 잠입귀재로, 한국계 배우이자 래퍼인 아파피나가 천재 소매치기인 질 도달인, 팝스타 리한나는 천재해커로 새로운 변신을 꾀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인 위안부 재판을 소재로 한 의미있는 작품도 관객들과 만난다. 장장 6년에 걸친 관부 재판 기록을 영화화한 '히스토리'는 오는 6월 말 개봉한다. '히스토리'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오직 본인들의 노력으로 일

본 정부에 당당히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담았다.

이 재판은 당시 일본 영도를 발각 뒤집을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이뤘지만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왔다. 부산에 설치된 신고 센터를 시작으로 6년간 23번의 재판을 하기 까지, 당당하고도 가슴 뭉클한 관부 재판의 과정을 그려 울림을 준다.

원고단 단장 문정숙(김희애)을 필두로 당당하고 강단있게 재판부를 향해 증언하는 배정걸(김혜숙) 변호사 이상일(김준한) 등 역사의 진실을 미루지 않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들과 함께 희망을 잃지 않고 할머니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원고단을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직 자신들의 노력으로 일본 정부에 맞서야 했던 6년의 치열한 시간을 집약하게 해 준다.

'신세계' '대호'의 박훈정 감독은 감각적인 미스터리 액션물로 돌아왔다. 6월 개봉예정인 '마녀'는 사실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은 의문의 사고가 일어난 날 밤 홀로 탈출한 후 모든 기억을 잃고 살아온 고등학교 자유(김다미) 앞에 의문의 인물이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1천 대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신예 김다미와 탄탄한 연기력과 카리스마의 배우 조민수, 박희순을 비롯 20대 대표주자 최우식 등이 출연한다.

모든 기억을 잃고 평범하게 살아 가던 자유 앞에 의문의 인물들이 등장하며 위기로 치달는 과정이 관객들의 공감을 자극한다. 노래, 그림, 외국어까지 못하는 게 없지만 진짜 나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유의 모습은 미스터리 그 자체다. 또한 모든 기억이 사라진 소녀 자유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이들과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존재가 관객들의 눈을 뜨게 해 준다.

인기 웹툰 '여중생A'를 원작으로 한 영화 '여중생A'는 6월 20일 개봉을 확정지었다. '곡성'으로 어린 나이에도 탁월한 연기력을 발휘, '천재 아이'으로 불린 김환희가 주인공이다. 이 작품은 취미는 게임, 특기는 글쓰기, 자존감 0%의 여중생 미래가 처음으로 사권 현실친구 백합과 태양 그리고 랜선친구 재희와 함께 관계 맺고 상처 받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다.

여기에 그룹 엑소 출신 김준현이 캐스팅돼 두 사람의 싱그러운 호흡을 기대하게 한다. 쫄쫄한 10대들의 이야기와 깨알 같이 숨어있는 원작 일러스트가 불거리려 지리한다.

'검법남녀' 상승세 이유3 #新공조 #메시지 #반전수사



분), 검사 은솔(정유미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차수호는 연미래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춰온 은솔과 강동식(박준규 분), 천미호(박희진 분) 등도 폐인으로 일관한 백범은 알고 보니 차수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구덩이를 조사하고 있었다.

또한 은솔도 자신의 남다른 '쪽'으로 진범 잡기에 나섰다. 그런 축 덕분에 은솔은 진범에게 목을 졸라 위협에 처했으나 강동식의 활약으로 무사히 구출됐다. 이들의 모든 노력 덕분에 차수호는 결백을 밝혔고, 경찰로 복귀할 수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는 백범과 은솔에게 메르스 감염 위기가 찾아왔다. 백범이 부검을 하려는 시체가 알고 보니 메르스 환자라는 의심되는 시체였고, 때 마침 부검 영장을 들고 들어

온 은솔은 백범과 함께 특수부검실에 격리되는 불상사를 겪게 됐다. 백범은 은솔의 설득 끝에 그를 도와 부검을 시작했으나, 실수로 메르스 손에 베이면서 긴장감을 높였다.

'검법남녀'는 지난 14일 방송 이후 꾸준히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전국 시청률 7%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랫동안 부진을 겪어왔던 MBC 드라마로서는 의미 깊은 동시진도 2위를 유지하고 있기도.

그런 '검법남녀'는 매회 남다른 공조와 반전, 사회적 메시지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검법남녀'의 중심 팀인 백범, 은솔, 차수호, 강동식, 천미호의 공조수사는 풀이감을 보이고 있다. 백범과 은솔의 티격태격하는 관계도 점점 케미를 보이고 있고 차수호의 누명을 벗기는 과정에서 다섯 명은 더욱 한 마음으로 뭉쳐 마침내 진짜 '팀'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캐릭터들의 성장, 존중해주는 팀워크가 선사하는 쾌감도 '검법남녀'의 중심 포인트.

생각할 거리를 안기는 사회적 메시지 또한 주의깊게 볼 만 하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재벌 갑질, 부부 폭력 등의 키워드가 녹아 들어갔고, 차수호의 사건에서는 데이트 폭력, 스톱강 등이 등장했다. 연미래의 죽음에도 안전이 필요한 슬픈 신조어다. 연미래씨 아무 도움 못 받고 폭력에서 죽어야 버티는 것"이라고 말하는 은솔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또한 한 주 마다 새로운 사건들로 시청자들이 쉽게 '검법남녀'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다. 시청유입 히틀을 낮추고, 매회 반전을 주기 용이한 사건 중심 포맷은 시청자들이 매력을 느끼기 충분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 덕분에 '검법남녀'는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게 하는 것. 과연 '검법남녀'가 상승세를 거듭해 동시진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눈길이 모아진다.

'더 콜', 팬덤 중심 음악시장의 이단아



"10대 중심, 팬덤 위주의 음악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좋은 음악이 나와도 들을 기회가 적어졌다고 봅니다. 새로운 음악이 나오려면 다양한 장르가 만나 섞여야 한다고 생각해 '더 콜'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Mnet '더 콜'을 만든 이선영CP가 30일 서울 삼남동 스펀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장르의 가수가 나올 수 있는 음악 예능을 만들어보려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 콜'은 유명 가수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무대로 경연하는 과정을 그린다. 가수 상승

훈, 김중국, 에일리, 거미, 황치열과 같은 보컬리스트부터 아이돌 그룹 멤버인 블랙비티, 태일, 힙합 가수 비와이 등 다양한 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출연해 무대를 꾸미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비와이는 "다른 장르의 가수들에게 많이 배우고 싶어 출연하게 됐다"고 했다.

반대로 MBC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SBS '신의 목소리' 등 다수의 음악 예능을 섭렵해온 거미는 "음악 예능이 더 이상 신선할 수 있을지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런 그가 출연을 결정한 것은 제작진의 기획 의도를 보고서다. 거미는 "시청자 입장에서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뮤지는 '더 콜'을 "모든 요소가 들어있는 음악 예능의 결정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다음에 나올 음악 예능이 '더 콜' 이상으로 될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여기에 화제가 된다 싶으면 주구장창 재방송을 하는 추진력이 인기 비결이 아닐까 싶다"고 너스레를 떨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출연 가수들이 가장 신망하는 대상은 단연 상승훈이다.

에일리는 "위낙 내 세배님이라서 처음에는 걱정이 컸다. 그런데 정말 편하게 대해주시고 내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작업을 마쳤다"며 즐거워했다.

조미 더 머니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 여러 음악 예능에서 기획력을 뽐냈던 이 CP는 '더 콜'을 만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출연 차트를 움직이는 힘이 일부 팬덤에게 집중됐다고 느꼈다면서 '더 콜'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이 CP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음악과 무대가 나온다. 나도 깜짝 놀라고 있다"며 기대와 지지를 요청했다.

'더 콜'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10분 방송된다.

美 빌보드, 10주년 사이니 컴백 집중 조명

정규 6집 첫 번째 앨범 'The Story of Light' EP.1(더 스토리 오브 라이트 에피소드.1)으로 컴백한 사이니(SHINee, 은유, 종현, Key, 민호, 태민)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뜨겁다.

미국 유명 매체 빌보드는 지난 2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HINee Commemorates 10th Anniversary With 'The Story of Light' EP(사이니가 10주년을 'The Story of Light'와 함께 기념하다)'라는 제목으로 사이니의 컴백을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빌보드는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로 유명한 사이니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타이틀 곡 '네버리 가(God Evering)'

는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떨어지는 듯한 여유로운 느낌의 동작이 돋보이는 댄스가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사이니는 2008년 히트를 기록한 첫 번째 미니앨범 '누난 너무 예뻐(Replay)'로 데뷔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복잡하고 실험적인 댄스에 포커스를 둔 곡을 선보이며 모범적인 K-POP 보이 밴드로 자리매김했다"고 호평했다.

는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떨어지는 듯한 여유로운 느낌의 동작이 돋보이는 댄스가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사이니는 2008년 히트를 기록한 첫 번째 미니앨범 '누난 너무 예뻐(Replay)'로 데뷔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복잡하고 실험적인 댄스에 포커스를 둔 곡을 선보이며 모범적인 K-POP 보이 밴드로 자리매김했다"고 호평했다.

오늘의 순세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음력 4월 17일)



▶**경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험한 과욕은 버려라. 상대가 서둘수록 침착하게 순리대로 행할 것. 1, 7, 9월생 언행 함부로 하다 구설로 인해 마음이 답답할 수. 사업은 금전 문제로 곤혹스럽지만, 남쪽에서 해결 기미가 보인다.



▶**세회** 믿자니 확실하지 않고, 떠나자니 미련을 버릴 수 없다. 두 갈래 길에서 방향하는 것. 1, 4, 9월생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라면 고달프지만 하니 분명히 선을 긋고 행하라. 비, 토, 로 성씨 인정에 끌리지 말 것. 귀인은 북쪽에 있다.



▶**운명** 2, 8, 10월생 뜻이 지나치게 높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기 쉽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골라 하라. 기, 비, 토 성씨 겸손한 행동이 당신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 오를 수 없는 나무는 처음부터 쳐다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투기를 삼가라.



▶**세회** 마음이 초조하다는 것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 기, 지, 을 성씨 견해 차이로 막대한 일들이 깨어질 수 있으나 일관되게 주장하면 이점이 좁혀질 수 있다. 3, 4, 10월생 새로운 길 찾으려 변동하려 하나 서두르지 말고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워 추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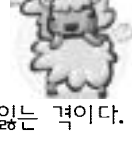
▶**운명**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라. 1, 2, 4월생 기, 사, 오 성씨 마음을 비우고 사랑하라. 부부가 서로 믿지 못 한 채 미워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기회를 만들어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



▶**세회** 부리가 단단해야 열매가 잘 맺는 것처럼 위사 사람이 본보기로 깨끗한 일을 열어놓아야 한다. 7, 9, 10월생 사육에서 벗어나 좀 더 절제된 생활을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 좋다. 북, 서쪽이 좋다.



▶**운명** 신의를 지키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라. 1, 8, 12월생 단단한 마음 알아줄 자 북, 동쪽에 있다. 말없이 외출하면 정 말 위험하다. 행방을 알리고 나가라. 기, 토, 비 성씨는 세상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



▶**세회** 가까운 자와 아주 멀어진 운. 6, 7, 10월생 친하면 친할수록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라. 지금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짜증 난다고 부리치면 갈 길이 먼데 길을 잃는 격이다. 기, 토, 오 성씨는 있는 것을 갖고 그대로 추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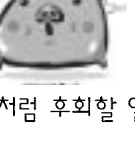
▶**운명** 기, 비, 토 성씨는 마음을 비워 다시 시작하면 성취의 문이 열린다. 혼자서 애태우는 격이 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자세도 현명한 방법임을 알 것. 4, 5, 8월생 소, 병, 돼지띠의 뜻은 당신과 같으나 서로 갈등하다 눈 속에 빠져들겠다.



▶**세회** 함께하는 기, 사, 오 성씨를 깊이 한 번 생각해보라. 계획은 멋지나 잘못 판단해 물도에 빠진 생쥐처럼 물가 염려된다. 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정말 곤란할 일 생길 수. 2, 6, 9월생은 더욱 신중히 하라.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



▶**운명** 3, 5, 12월생 말이 많으면 실연해 다 된 밤에 새 떨어질 수 있으니 가족을 만날 때 언어에 신경 쓰라. 잠자는 개의 꼬리를 밟지 마라. 주인도 모르게 덤벼들어 물을 수 있다. 개, 닭, 용띠에게 관심을 가지라. '참을 인' 자 세 개를 명심하라.



▶**세회** 4, 9, 11월생은 가족과 의견 차이로 시비가 생길까 염려된다. 성질대로 대하지 말 것. 사랑하는 사람도 못 믿는 성격에 다른 사람 믿고 따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처럼 후회할 일이 있겠다.